"생명 구하는 '나눔'에 동참하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의 날' 행사

"생명나눔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월 22일 '생명나눔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은 보건복지부 지정 불교계 장기이식결연기관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서 생명나눔에 동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벌인 날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이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기증자들에 대한 표창과 난치병 환우들에 대한 지원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생명나눔 회원들과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전원주 회장, 가수 최백호씨 등이 참석해 생명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길이 있어 행복합니다." '2007년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는 후원자·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 생명나눔의 의미를 함께 새겼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4년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설립했다. 설립자인 법장 스님의 법구가 2004년 열반 당시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증되면서 불자들 사이에서 '생명나눔'이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그런데 '생명나눔'이라는 말은 일반인에게 아직 낯선 단어다. 다른 것도 아닌 '생명'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또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는 했으나 생명나눔실천본부라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장기기증결연·헌혈증지원 등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무엇을 하나요?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는 기본사업으로 장기기증결연사업, 헌혈증지원 및 혈소판공여사업, 난치병환자돕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기증결연사업은 사후(死後)기증과 생체기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사후기증으로는 시신 · 각막 · 장기 등은 물론 뼈 · 연골 · 피부 · 인대 · 혈관 등의 인체조직까지 기증할 수 있다. 올해(10월 현재)는 사후기증은 시신기증 13건, 뇌사기증이 1건 있었다.

헌혈증 지원 및 혈소판 공여사업은 생체기증의 일환으로, 백혈병 등의 난치병 환자들이 각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헌혈증 지원 600매, 혈소판공여 기증 1건이 있었다.

또한 난치병환자돕기사업은 매월 생활환경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를 선정, 모금을 통해 치료비 ·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기지원, 특별지원 등 모두 1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모금액이 환우들을 위해 쓰였다.

이런 기본 사업 외에도 해마다 특별 사업을 실시한다. 2007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으로는 뇌사 · 조직기증희망자 등록 및 릴레이, 장기이식 인식전환 세미나 등을 펼치고 있다.

이중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은 특히 중요한 사업이다. 난치병 환자의 경우 피를 재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런 환자들에게 이식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는 가족 외에 거의 없기 때문이다. 타인에게서 조혈모세포를 찾을 경우 그 조직이 맞을 확률은 수만분의 일에 불과하다. 샘플이 많을수록 난치병 환자에게 맞는 조직을 찾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조혈모세포기증자들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3085명의 등록자를 받았다.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총 등록인원은 1만1585명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나 아직 '생명나눔'에 대한 궁금증이 풀린 것은 아니다. 이는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자주 문의가 오는 오해 몇 가지를 통해 더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박스 참조>

조혈모세포기증희망 등록을

#생명나눔에 동참하려면?

'생명나눔'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자주 하는 '헌혈'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생명나눔이기 때문이다.

다만 좀 더 의지를 갖고 생명나눔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생명나눔실천본부(02-734-8050)에 연락해보자. 요즘 한창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3㎖만 채혈하면 유전자 정보가 등록 돼 필요한 환자에게 공여가 가능해진다. 단, 조혈모세포기증희망 등록은 만18세이상 55세이하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 박용희 홍보팀장은 "얼마 전 탤런트 최강희씨가 골수를 기증했다는 기사가 나간 후 엄청난 반응이 있었다"며 " 불교계에서는 스님들께서 나서주시면 불자들이 많이 따르는 편"이라고 스님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김강진 기자

조혈모세포 기증
전신마취 없이
2~4시간 헌혈하듯

생명나눔은 '죽어서만' 할 수 있다?

아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생체이식도 가능하다. 생존시 장기이식으로는 신장 · 간 이식 등이 있고 헌혈 · 혈소판 공여, 골수 · 조혈모세포 기증도 생체이식의 범주에 포함된다.

골수기증(조혈모세포 기증)은 '아픔'을 동반한다?

예전에는 골수를 직접 골반에서 뽑아냈다. 지금도 이런 방법을 시행하고는 있다. 골반뼈에서 직접 뽑는 경우 기증자는 1~2시간 동안 전신마취 상태이며 천천히 채취하게 된다. 이 경우 채취부위에 3~4일간 뻐근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요즘 새롭게 각광받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채취는 기증자에게 채취 5일전부터 '과립구 집락촉진 인자'라는 약제를 매일 주사한다. 이후 전신마취 없이 헌혈하듯 채취한다. 소요시간은 2~4시간이며 통증은 거의 없다.

골수기증을 하면 몸이 안 좋아 진다?

간단히 말해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골수를 뽑을 때 맞게 되는 마취제나 촉진 주사 등에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각 채취가 중단되므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사와 식물인간을 헛갈려한다. 뇌사자는 손상부위가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고 심박동외의 모든 기능이 정지돼 있지만 식물인간은 손상부위가 대뇌 일부이고 기능적으로도 기억 · 사고 등 대뇌장애만 있을 뿐이다. 또 뇌사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지만 식물인간은 가능하다.

뇌사의 경우 뇌사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정되며, 뇌사 판정 이후에는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있다.

들어는 봤으나 아리송한 생명나눔용어

◆조혈모세포: 피를 만드는 줄기세포. 골수나 말초혈, 제대혈 속에 포함되어 있다. 백혈구와 적혈구 · 혈소판 등을 만들어낸다.

◆골수: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 뼛속 가장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혈액성분을 통상적으로 골수라고 부르고 있다.

◆제대혈: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 조혈모세포는 물론 연골과 뼈 · 근육 · 신경 등을 만드는 세포도 갖고 있어 의료가치가 높다.

◆말초혈: 일반 혈액검사를 위해 피부를 통해 채취하는 혈액과 같이 전신을 순환하고 있는 혈액.

⑤ 조계사 장애인포교단체 원심회 김장경 회장

각 대학에 '손짓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아리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수화(手話) 동아리다. 사람들은 손짓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동경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화의 본질은 청각장애인과 대화하는데 있다. 그 본질을 지키면서 불교 색채를 덧입힌 것이 불교수화다. 아직은 낯설고 많이 보급되지도 않은 불교수화.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바로 지금도 불교수화를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다. 조계사 장애인포교단체 원심회 김장경 회장(40)이 그런 사람이다.

"손짓 언어로 부처님 말씀 전파"

"수화는 청각장애인과 대화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실망하기 십상이죠."

수화는 언어와 똑같다. 단어가 생기기도 사장(死藏)되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 외래어도 받아들인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에게 불교에 대해 설명하려면 당연히 기존 수화에서 불교와 연관된 손짓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김 회장에 따르면 '부처님'이라는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는데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단다. 그런 과정을 거쳐 비로자나불의 수인(手印)이 '부처님'으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원심회 1기도 아닌 '0기'로 출발했고 원심회가 생긴 것은 1988년이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불교수화를 연구하고 가르쳐왔다. 거기다 원심회 수장. 이래저래 임무가 막중해 "책임감만 늘어간다"고 토로한다.

20년간 불교수화 연구·교육 앞장

'찬불가 수화 CD' 제작 무료 배포도

그가 이렇게 '책임있는 사람'이 된 까닭은 장애인 법회, 불교수화 등에 불자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다. 예전에는 한 기수당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심회에 가입했으나 지금은 광고를 내도 한 두 명 가입할까 말까다. 후원회원도 이전에 비하면 4분의 1수준이다. 김 회장은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 몇 달 배운 사람이 강의에 나가야 할 지경"이라며 한숨을 쉰다.

"스님들께서 수화를 배우시지 않는 게 가장 서운하죠. 스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장애인 포교가 수월하겠죠."

2006년 정부에서 <표준수화사전>을 편찬했을 때, 이웃 종교에 비해 빈약한 불교수화를 보며 부끄러웠단다. 그런 감정 속에서 올해 드디어 만들어낸 것이 '찬불가 수화 CD'. 현재 원심회에서 무료배포 중이다.

"고작 서른 곡 남짓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아니면 누구도 못한다는 생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어요."

걱정은 많아도 그는 '원심회'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 김 회장의 끊임없는 애정과 자부심이 아니었다면 원심회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원심회 법당에서 진행하는 청각장애인법회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그의 '수화'와 청각장애인에 대한 열정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난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강하기 마련이니까.

"앞으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건물 보다는 조계사에 거점을 만들어 불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강진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www.njutcm.edu.cn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8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학림

한국 총장 손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